

전주한옥마을 '1500만 관광객 시대' 청신호

빅데이터 분석 결과 1·2월 두 달간 관광객 305만3939명 방문...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사상 최고 1129만4916명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 기대...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연중 운영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500만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이동통신기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전주한옥마을에 305만3939명이 다녀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1월과 2월 전주한옥마을에 올해의 절반 수준인 130만 8159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연간 관광객 수는 1129만4916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는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올해 전주한옥마을이 15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한옥마을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 손꼽힌다. '한국관광 100선'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꼭 가볼만한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문체부 대표사업으로, 전주한옥마을은 12년째 국내 대표 여행지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전주한옥마을 전경

여기에 시는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이자 최근에는 지난달 26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개막 27일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등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달 말 경기전 인근에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및 관광정보를 제공할 '여행자라운지'를 개소했으며, 올 연말에는 12년째 국내 대표 여행지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5월부터 7월까지의 매주 주말과 휴일에 경기전 광장 등 한옥마을 일대에서 (가칭) 한옥마을 LIVE 행사도 펼쳐지고, 5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부터는 한옥마을 야간상설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옥 마당에서 즐기는 한옥 정원콘서트 △경기전 광장에서 열리는 시립예술단 공연 △전주세계문화주간 △밤의 공연 △왕과의 신책 △스문장 교대식 △심록파 포제제전 △전

주문화제이행 △2023 전주조선팝 페스티벌 △503 전주별시 △전주대표축제 △전주독서대전 등 다양한 축제 및 공연·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전주한옥마을을 주무대로 펼쳐지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한옥마을 온라인 및 낭만체험 스텝프루어 운영 △한옥마을 자율가이드공연단 및 플랫폼 운영 △한옥마을 문화장터 △한옥마을 방송국 △별별체험단(수공예체험)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의 이동편선을 확대하고 여행 만족도를 높여 한옥마을을 체류형 여행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한옥마을의 구성구석을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전주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공식 누리집과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여행정보 상담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체험 안내지도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 전주서 '격돌'

전주 비보이그랑프리 성료... '베이스어스 피처링 포켓' 우승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격돌한 '제16회 전주 비보이그랑프리'에서 '베이스어스 피처링 포켓'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관법인 라스트포켓'이 주관한 '제16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대회가 지난 5일 국립무형유산원 열수마루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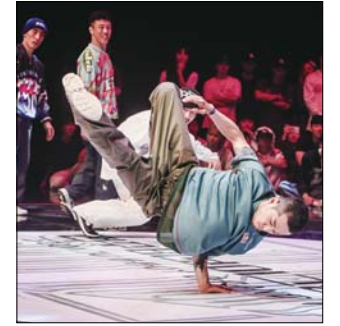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대규모 크루배틀을 펼치는 대한민국 최고이자 유일의 비보이 대회로, 올해 대회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춤꾼들이 전주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꾸몄다.

대회 결과 우승은 베이스어스 피처링 포켓이 차지해 상금 1,000만원과 트로피, 상패를 거머쥐었다.

2등을 차지한 '블로우엑셀'에는 상금 400만원과 상패가, 공동 3위(BEST4)를 차지한 '아티스트리'과 '소울번즈'에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또한 올해 대회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화려하고 흥겨운 특별 게스트들의 특별한 무대도 펼쳐졌다.

오프닝 공연에서는 국내 심사위원 3명과 해외 심사위원 2명의 기량을 엿



볼 수 있는 심사위원 저지 쇼케이스가 진행됐으며, 2022 스트리트댄서아카데미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프리퀀싱즈'와 2021 소미더머니 우승자 '조광일'의 랩 공연 등 다양한 유명 아티스트들의 특별 공연도 펼쳐졌다.

우병기 전주시장장은 "전주는 어린아일부터 MZ세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라며 "해마다 열리는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통해 전주를 세계적인 비보이 도시로 알리고, 이 대회를 세계 수준의 메이저 대회로 성장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기후위기·에너지전환 프로그램 '풍성'

전주시에너지센터, 다양한 시민 참여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진행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위기·에너지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에너지자립형 그린리모델링 공공건물로 문을 연 에너지센터에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탄소중립 실천 에너지전환 교육, 자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벡트치고 에센'은 센터 공간에 적용된 재료에 너지 건축 기술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사전 접수로 운영된다.

'기후위기 방탈출 마지막 비상구'는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올바른 에너지 이용 재료에너지건축 요소를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전

및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필사의 노력'은 환경 도서를 필사(筆寫)한다는 의미와 탄소중립 활동을 필사(必死)적으로 실천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센터 1층 에너지 책방에 비치된 선정 도서를 필사하거나, 이달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 '일주일 채식 한 끼'를 수행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센터는 참여 시민 중 매월 10명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에너지센터 1층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된다.

센터의 △협업공간 '작당포드' △에너지 책방 '전환시점' △에너지 자립 카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

시, 시청 일원서 어린이날 기념식

전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일원에서 전주지역 아동과 부모 등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과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범 어린이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표창 대상자는 모범 어린이 12명과 아동복지 유공자 8명 등 총 20명으로, 어린이에 대한 표창은 봉사·예능·체육·과학기술·여행 부문으로 나뉘어 수여됐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표창 대상 어린이 중 남녀 대표 어린이가 어린이의견을 낭독했으며, 아트피아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어린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주 놀이주간도 진행했다. 전주 놀이주간은 어린이 등 모든 시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아트피아 합창단원들이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다.

민을 대상으로 △막 터트리기 퍼포먼스 △놀이마당 △체험·홍보부스 △부대행사 △포토존 운영 등 풍성하게 꾸며졌다.

특히 놀이마당에는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짐볼을 이용한 짐볼놀이 △대형 젠가를 이용한 블록쌓기 놀이 △대형 아크릴 보드판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그림그리기존 △각목을 이용하여 서로 지지해주는

상호지지 구조인 다민치다리 터널 △목재 미끄럼틀 등 모두가 함께 즐기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행사장에는 가족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으며, △페이스페인팅 △젤베, 카훗, 콩고 등 다양한 소리의 타악기 체험 △나무를 이용한 목공놀이 및 만들기 △나무의 뜯개목소리 만들기

△지력자동차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 교육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우병기 전주시장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하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농생명 유망기업 집중 육성 나선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13개 수혜기업과 협약식 가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지난 3일 새시사이드(대표 한원경) 등 2023년도 전주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의 13개 수혜기업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행된 '전주시 기업지원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전주 농생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원은 전주에 주소를 둔 농생명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성분분석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 △마케팅 홍보 지원 △수요 맞춤형

형 지원 △인재 지원 △전문가 활용 지원 등 6가지 분야이다.

연구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선정된 13개 기업이 만족할 수 있고 지역 농생명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연구원과 참여기업 간 △협업체구성 △역량 강화 교육 △성과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등에 적극 협업키로 약속했다.

오병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전주시 관내 농생명 기업의 맞춤형 육성지원을 통해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난 3일 새시사이드 등 2023년도 전주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의 13개 수혜기업과 협약식을 가졌다.

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고부가관공상품개발,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동행축제' 기념 라이브커머스

전주시, 8~12일 전북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2023 동행축제를 맞아 전주와 전북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기획전이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동행축제를 기념하는 라이브커머스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 기획전은 소상공인과 시청자들이 보다 생생한 동행축제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소담스퀘어전주(덕진구 서귀로 107)에 구축된 5개의 스튜디오에서는 전주와 전북지역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된다.

이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는 '한옥마을과 함께하는 봄빛장터'가 열리는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소담스퀘어전주 라이브커머스 기획전에는 총 22개 업체가 참여하며, △구강제정기, 비누 등 유용한 생활용품 △과일청, 달걀, 된장소금, 만두 등 맛있는 먹거리 △방짜유기, 한지인형

등 전통 수공예품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기존 오프라인 가격보다 1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라이브커머스 기획전을 기념해 △구매왕 동행축제 기간 내 최대 금액 구매 이벤트 △럭키왕(동행축제 기간 내 구매 고객 중 추첨) 이벤트 △소담왕(댓글) 이벤트 △시청자 대상 인종 이벤트 등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됐다.

소담스퀘어전주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송출되며, 네이버쇼 라이브 사이트에서 '전라북도 로컬마켓' 또는 'JICA'를 검색하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전주의 라이브커머스 기획전과 이벤트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담스퀘어전주 블로그(blog.naver.com/jcal4000) 또는 인스타그램(jas_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커머스 기획전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우수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향후 지속적인 판매 촉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